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권혁진**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에 대한 빈곤평가의 문제 :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방법을 중심으로
- 황진영** 사회보호 지출에 대한 경제사회적·정치적 영향 : OECD 국가 간 실증분석
- In-Young Jung** Explain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Social Policy in Korea : The Cas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엄기욱** 일본 거주 외국인 영주자의 사회복지 수급권에 관한 연구
- 신영전 | 손정인** 미 총족의료의 현황과 관련요인 :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 신호성 | 정기혜 | 윤시론 | 이수형**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 예측
- 석재은**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 한삼성 | 강성욱 | 유왕근 | 피영규** 노인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이윤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 다층모형(HLM)을 통한 개인과 지역요인 분석
- 이건직**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서 평** 강신욱 : 인간의 심리, 야수의 성정(性情), 그리고 경제위기
강은정 : The Politics of healthy policies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석재은

(한림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세대별로 본인의 노후생활비 조달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인식의 차이를 달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7년에 수행된 한림고령자패널 3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과 노령세대의 세대별로 노후부양의 주체로서 개인, 가족,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 노후부양에 대한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선호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 등 가용자원의 보유정도, 그리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 등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른 노후부양책임 주체에 대한 상이한 선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고령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이기 보다는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으로 생각한다. 가족자원(특히, 자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하며, 경제적자원과 건강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긴다. 또한 부모부양책임감이 강할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한다. 세대별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상이성은 가족부양 가치관의 약화 및 가족부양 자원의 감소를 반영하여, 가족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책임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분석 결과는 성숙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선진국과 다른 한국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보여준다.

주요용어: 노후부양, 노후부양관, 노후생활비 조달원, 노후부양책임, 개인책임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KRF-2006-322-B00010).

■ 투고일: 2009. 05. 06 ■ 수정일: 2009. 05. 20 ■ 확정일: 2009. 05. 26

I. 서론

노후부양관은 개인(본인), 가족(자녀), 국가(사회) 중 누가 노후부양의 책임주체라고 생각하는가, 누가 노후생활비의 주요 소득을 마련,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누가 본인의 은퇴 후 노후생활비를 조달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 전자의 두 질문이 객관적인 사회규범에 보다 강조점을 둔 인식 및 태도라면, 세 번째 후자의 질문은 규범적 가치에 현실의 여건을 반영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노후부양관은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노후부양에 대한 객관적 사회적규범, 즉 부양책임감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시기에 본인(개인), 가족, 국가 중 누구를 노후부양의 주요 책임주체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노후부양관의 정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노후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규범과 실제 부양이 일치할수록 노후부양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반면, 노후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규범과 실제 부양 간의 괴리가 클수록 노후부양 공백이 발생하여 많은 노인들이 빈곤상태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노후부양관은 개인이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고, 자녀가 부모부양에 대해 계획을 하고,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후부양관은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김상욱, 2000;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김정석, 2005; 석재은·유은주, 2008). 노후부양관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용 자원의 원천이 다양화되고 풍부해지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노후부양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후의 경제적부양과 관련한 노후부양관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스칸디나비아국가와 같이 가족의 부양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에서부터 남부 유럽국가들과 같이 확대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강조하는 등 국가 간 변이는 존재하지만, 일찍이 자녀부양을 대체하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에 발달하여 노후부양의 핵심 쟁점인 가족부양에 대한 가치규범과 실제에 대한 논의가 큰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Millar and Andrea, 1996; Daatland and Herlofson, 2003). 최근 국가재정 악화와 인구고령화로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역할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책임과 개인책임 간의 적절한 균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다(Rein and Turner, 1999).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부모부양의 규범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일부의 경우에는 가족의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관심이 높다(일본 내각부, 2002).

국내에서는 노후부양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이 미흡한 상황에서 가족부양에 대한 부

담감(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져 왔으나, 노후부양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정석, 이가옥(Kim and Lee, 1999)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 노인생활실태조사자료를 가지고 노인의 노후부양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었으며, 김정석(2005)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 및 2004년 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령층 노후부양관의 10년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환이론 관점에서 세대관계와 노후부양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들로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2000)은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을 다루고 있으며, 김상욱(2000)은 노인부양의 태도·행위의 세대내 및 세대간 불일치를, 이상립, 김두섭(2002)은 세대간 교환관계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을, 김영범, 박준식, 이기원(2008)은 자녀와의 자원교환과 노인의 부양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다루고 있다. 또한 박현정, 최혜경(2001)은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인의 노후부양가치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후부양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노인 혹은 중년층의 한세대의 노후부양관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노후부양관의 세대별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종단연구는 아니지만 10년의 차이를 두고 변화된 노령층의 노후부양관을 분석한 김정석(2005) 연구에서는 노후부양관 변화요인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부양가치관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만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요인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원변수도 경제적자원 변수에 한정되어 상이한 속성의 경제, 가족, 건강자원의 변화를 평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세대별로 본인의 노후생활비 조달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세대별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달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별로 노후부양에 대한 규범적 가치와 실제 가용자원은 상이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세대별로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선호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검증하지 못한 부양가치관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세대별 부양가치관 차이와 노후부양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원변수의 경우에도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으로 세분하여 자원의 종류별로 세대별 보유정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자원종류별 세대별 차이가 노후부양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개인, 가족, 국가 등 노후부양 책임주체의 역할 기대를 명확히 하여 노후부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부양관

노령계층은 다양한 소득원을 통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되지만, 노후생활을 위한 주요비용을 누구에 의해 조달하는가, 노후부양의 책임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은퇴의 제도화로 노령기의 근로소득 상실은 보편적인 사회적위험이 되었다. 따라서 노령기에는 자녀가 노령부모를 부양하거나, 국가가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부양을 하거나, 노인 스스로가 노령기를 대비해 준비한 저축, 자산, 사적연금 혹은 노령기에도 계속근로를 통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사회구성원이 노후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요 소득을 어디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사회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노후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요 소득을 어디로부터 조달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구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고, 개인이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 배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본 내각부에서 5년마다 몇 개 국가의 노인생활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작성한 고령자 생활과 의식보고서에서 노인의 생활비 조달방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1980년 조사당시에는 노후생활비 조달을 가족에 의존하겠다는 가족의존형이 가장 높은 49.4%를 보였으나, 2000년 조사당시에는 동비율이 19.5%로 대폭 감소하는 대신 사회보장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겠다는 사회보장의존형이 1980년 8.2%에서 2000년에는 32.7%로 대폭 증가하여 노인의식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석재은·유은주, 2008).

한편, 노인의 소득원 구성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¹⁾, 한국과 대만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을 주소득원이라고 답한 노인이 각각 45.4%(2000), 56.5%(19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형적인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국가군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과 미국은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소득이전이 주요한 소득원이라고 답한 노인이 각각 80.1%, 75.8%, 67.5%,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외국의 노인 소득원 구성에 대한 조사 자료는 일본의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내각부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 5년마다 주요국의 노인생활실태를 조사한 자료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2000년으로,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의 60세 이상 노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동일설문지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 1. 노후 생활비 조달 의식의 국제적 추이비교: 1980~2000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스웨덴	
	1980	1995	2000	1980	1995	2000	1980	1995	1980	1995	2000	1990	1995	2000	2000
자립형	40.3	41.9	46.3	55.0	46.6	42.6	24.7	41.2	60.7	62.1	50.8	45.2	32.2	39.6	37.6
가족 의존형	49.4	28.2	19.5	18.8	12.8	7.9	61.4	41.9	0.6	0.8	4.9	6.0	3.8	1.7	1.8
사회보장 의존형	8.2	29.2	32.7	21.8	37.7	46.3	10.6	16.1	29.1	25.7	37.8	45.6	59.3	57.2	57.3

자료: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재구성; 일본 내각부(2002),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제5회국제비교조사결과보고서에서 필자가 재구성.

표 2. 노인(60세 이상)의 주소득원 국제비교: 1980~2000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스웨덴	
	1980	1995	2000	1980	1995	2000	1980	1995	1980	1995	2000	1995	2000	2000	
근로소득	16.2	26.6	28.1	31.3	21.6	20.8	29.9	26.9	15.2	15.5	13.9	4.6	7.1	11.8	
자산소득	소계	5.5	9.9	15.8	11.2	6.6	5.5	6.7	8.8	26.2	23.3	24.3	13.7	12.3	3.1
	재산소득	3.3	4.5	5.6	5.3	2.5	2.3	3.8	4.8	14.5	8.5	7.0	2.0	1.9	0.6
	예금인출	2.2	4.9	9.6	2.1	2.4	1.6	1.7	1.9	1.7	1.5	0.9	1.6	1.3	0.6
	사적연금	0.0	0.5	0.6	3.8	1.7	1.6	0.2	2.1	10.0	13.3	16.4	10.1	9.1	1.9
사적이전	소계	75.6	56.6	45.4	18.7	6.6	6.1	61.6	56.5	3.8	1.6	3.2	1.9	3.3	2.2
	자녀지원	72.4	56.3	43.2	15.6	4.2	3.4	58.2	52.9	0.3	0.0	0.1	0.2	0.2	0.0
	기타	3.2	0.3	2.2	3.1	2.4	1.7	3.4	3.6	3.5	1.6	3.1	1.7	3.1	2.2
공적이전	소계	2.0	6.6	10.9	36.1	57.4	68.4	2.3	7.6	54.6	55.8	57.1	77.6	77.3	83.0
	공적연금	0.8	2.9	5.9	34.9	57.1	67.5	2.2	7.3	53.9	55.5	56.6	77.0	75.8	80.1
	공공부조	1.2	3.7	5.0	1.2	0.3	0.9	0.1	0.3	0.7	0.3	0.5	0.6	1.5	2.9

자료: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1997),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조사결과 보고서, 중앙법규; 일본 내각부(2002),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제5회국제비교조사결과보고서에서 필자가 재구성.

노인의 주소득원이 각 국가에서 보이는 변화추이의 특징적인 점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80년 조사 당시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75.6%에 달하였으나, 1995년 조사에서는 56.6%로 약 20% 포인트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45.3%로 5년 동안 약 10% 포인트 넘게 감소하였다. 한국 노인들의 경우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주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은 10.9%로 여전히 절대비중에 있어서는 낮으나, 1980년의 2.0%에 비하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부양책임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노후부양관 영향요인

김정석(2005)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4년과 2004년에 실시한 노인생활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0년 사이의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노후 부양의 전통적 책임주체였던 가족으로부터 개인책임 혹은 사회적책임 중 어디로 이동해 갈 것인가, 또한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거주지역, 연령, 성,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아들유무, 근로혹은 사업소득, 연금 및 자산소득, 국가 혹은 사회단체보조, ADL 제한유무, 그리고 시간 차이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도 변수이며, 가족책임을 기준변수로 개인책임, 사회적책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 10년간의 노후부양관의 변화는 분명한데, 변화 방향은 가족책임을 약화, 개인책임을 유지, 국가책임을 강화이며, 본인책임과 국가책임에 대한 지지는 비슷하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가치규범과 자원 변인을 들 수 있으며, 노인들의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노후부양관에 대한 노인집단의 인식이 동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석(2005)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의 한계로 부양가치관 등 가치변수를 직접적으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고, 자원에 대해서도 경제적자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문제인식이 연구모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부양책임감, 아들선호사상 등 가치관 변수와 함께 가용자원을 보다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으로 구분하고, 그 외 노인의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등 인구적 특성을 함께 포함하는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영향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노령층 뿐만 아니라 중장령층도 포함하여 노령계층과 중장년층의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를 살펴보고, 영향요인의 차이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변수의 선정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중고령세대들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본인, 가족, 국

가(사회) 중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누구로부터 조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로 표현되는 중고령세대의 노후부양관 실태와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후부양책임 주체이다. 노후부양책임 주체는 본인, 가족, 국가로 크게 구분된다(Kim and Lee, 1999; Rein and Turner, 1999; 석재은·김태완, 2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림고령자패널에서 노후부양관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가운데, 본 분석에서는 “본인의 은퇴 후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해 가장 크게 의존하고 계신 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저축 또는 개인연금, 퇴직금, 이자소득, 임대료, 근로소득을 개인책임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도움을 가족책임으로 정의하고, 공적연금 및 공적부조를 국가책임으로 정의하였다.

나. 독립변수

선행연구에서 노후부양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구학적 변수 외에 자원변수와 가치변수를 들고 있다(Kim and Lee, 1999; 김정석,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성,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고, 배우자유무, 자녀수, 아들유무, 자녀동거여부 등 가족자원 변수, 경제상태, 연금자원유무, 자가소유여부 등 경제적자원 변수, 건강상태, ADL 장애유무 등 건강자원 변수, 부모부양책임가치, 아들선호사상 등 가치관 변수 등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07년에 수행된 한림고령자패널 3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한림고령자패널은 2003년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2005년, 2007년 2차 및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서울 및 춘천 거주 2003년 현재 45세 이상 장노년층이며, 2007년 조사는 1,274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의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179개 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3. 변수의 조작화

노후부양관은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의 세가지 명목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족본인의 은퇴 후 노후생활비의 주요 조달방법에 대한 대답으로 저축 또는 개인연금, 퇴직금, 이자소득, 임대료, 근로소득이라고 응답한 것을 개인책임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도움으로 응답한 것

을 가족책임으로 정의하고, 공적연금 및 공적부조로 응답한 것을 국가책임으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표 3>와 같다. 연령은 2007년 기준으로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등 4가지 집단으로 재그룹핑하여 서열변수로 만들었다. 45~54세 집단은 1953~57년생으로 6.25 전후 베이비 붐세대로 1980~2010년대에 근로연령기를 보낸 세대이며, 55~64세 집단은 1943~52년생으로 해방 전후 6.25 전쟁시기에 태어나 1970~2000년대에 근로연령기를 보낸 세대이다. 65~74세 집단은 1933~42년생으로 일제시기에 태어나 1960~1990년대에 근로연령기를 보낸 세대이며, 75세 이상 집단은 1932년 이전 출생자로 일제시대에 태어나 1950~1980년대에 근로연령기를 보낸 세대이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경제적상태와 건강상태는 모두 주관적인 인식에 근거한 5점 척도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좋은 것을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내용	
종속변수		노후부양관	명목변수 (개인책임=1, 가족책임=2, 국가(사회)책임=3)	
독립 변수	통제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	명목변수 (여성=0, 남성=1)
			연령	서열변수 (45~54세=1, 54~64세=2, 65~74세=3, 75세 이상=4)
			지역	명목변수 (농어촌=0, 도시=1)
			교육수준	연속변수 (교육연수)
	자원 변수	가족자원	배우자유무	명목변수 (배우자 비동거(사별, 이혼, 별거)=0, 배우자 동거=1)
			자녀수	연속변수 (자녀수)
			아들유무	명목변수 (아들 무=0, 아들 유=1)
			자녀동거여부	명목변수 (자녀비동거=0, 자녀동거=1)
		경제적 자원	경제적상태	5점 척도 (매우어렵다=1, 조금어려운편이다=2, 보통이다=3, 여유가있는편이다=4, 매우여유가있다=5)
			연금자원유무	명목변수(연금자원무: 공적, 사적연금 미가입/미수급=0, 연금자원유: 공적, 사적연금 가입/수급 =1)
			자가여부	명목변수 (비자가=0, 자가소유=1)
		건강자원	건강상태	5점 척도(매우건강하지못하다=1, 건강하지못하다=2, 보통이다=3, 건강하다=4, 매우건강하다=5)
			ADL장애유무	ADL장애유무 (ADL 장애무: ADL 10항목 모두 혼자한다 =0, ADL장애유: ADL 10항목 중 1항목 이상 도움이 필요하다 =1,)
		가치 변수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	부모부양책임감
아들선호사상	연속변수 (3~15점) 아들선호 및 장남선호에 대한 3항목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아들선호사상 높음			

의미한다. ADL 장애유무는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10가지 항목 중 한가지라도 부분의존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애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부모부양책임감은 실바크(Seelbach, 1978)가 개발한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척도로 측정되는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양책임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6개 항목의 총합점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아들선호사상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들선호사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3문항의 총합점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후부양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빈도 분석, 기술분석, 교차분석 등을 통해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등 세범주로 구분되는 노후부양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개인책임을 기준 변수로 하고,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을 상대적 영향요인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영향요인 및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집단별 4가지 집단과 비노령집단 및 노령집단의 2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ln(\text{PB/PA}) = bB0 + bB1(\text{성}) + bB2(\text{연령}) + bB3(\text{지역}) + bB4(\text{교육수준}) + bB5(\text{배우자유무}) + bB6(\text{자녀수}) + bB7(\text{아들유무}) + bB8(\text{자녀동거여부}) + bB9(\text{경제적상태}) + bB10(\text{연금자원유무}) + bB11(\text{자가여부}) + bB12(\text{건강상태}) + bB13(\text{ADL장애유무}) + bB14(\text{부모부양책임감}) + bB15(\text{아들선호사상})$$

Model 1: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모델

$$\ln(\text{PB/PA}) = bB0 + bB1(\text{성}) + bB2(\text{연령}) + bB3(\text{지역}) + bB4(\text{교육수준})$$

Model 2: 인구학적 변수 및 자원변수 영향모델

$$\ln(\text{PB/PA}) = bB0 + bB1(\text{성}) + bB2(\text{연령}) + bB3(\text{지역}) + bB4(\text{교육수준}) + bB5(\text{배우자유무}) + bB6(\text{자녀수}) + bB7(\text{아들유무}) + bB8(\text{자녀동거여부}) + bB9(\text{경제적상태}) + bB10(\text{연금자원유무}) + bB11(\text{자가여부}) + bB12(\text{건강상태}) + bB13(\text{ADL장애유무})$$

Model 3: 인구학적 변수, 자원변수 및 가치변수 영향모델

$$\ln(\text{PB/PA}) = bB0 + bB1(\text{성}) + bB2(\text{연령}) + bB3(\text{지역}) + bB4(\text{교육수준}) + bB5(\text{배우자유무}) + bB6(\text{자녀수}) + bB7(\text{아들유무}) + bB8(\text{자녀동거여부}) + bB9(\text{경제적상태})$$

$$+bB10(\text{연금자원유무})+bB11(\text{자가여부})+bB12(\text{건강상태})+bB13(\text{ADL장애유무}) \\ +bB14(\text{부모부양책임감})+bB15(\text{아들선호사상})$$

$$\ln(PC/PA)=bC0+bC1(\text{성})+bC2(\text{연령})+bC3(\text{지역})+bC4(\text{교육수준})+bC5(\text{배우자유무})+bC6(\text{자녀수})+bC7(\text{아들유무})+bC8(\text{자녀동거여부})+bC9(\text{경제적상태})+bC10(\text{연금자원유무})+bC11(\text{자가여부})+bC12(\text{건강상태})+bC13(\text{ADL장애유무})+bC14(\text{부모부양책임감})+bC15(\text{아들선호사상})$$

Model 1: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모델

$$\ln(PC/PA)=bC0+bC1(\text{성})+bC2(\text{연령})+bC3(\text{지역})+bC4(\text{교육수준})$$

Model 2: 인구학적 변수 및 자원변수 영향모델

$$\ln(PC/PA)=bC0+bC1(\text{성})+bC2(\text{연령})+bC3(\text{지역})+bC4(\text{교육수준})+bC5(\text{배우자유무})+bC6(\text{자녀수})+bC7(\text{아들유무})+bC8(\text{자녀동거여부})+bC9(\text{경제적상태})+bC10(\text{연금자원유무})+bC11(\text{자가여부})+bC12(\text{건강상태})+bC13(\text{ADL장애유무})$$

Model 3: 인구학적 변수, 자원변수 및 가치변수 영향모델

$$\ln(PC/PA)=bC0+bC1(\text{성})+bC2(\text{연령})+bC3(\text{지역})+bC4(\text{교육수준})+bC5(\text{배우자유무})+bC6(\text{자녀수})+bC7(\text{아들유무})+bC8(\text{자녀동거여부})+bC9(\text{경제적상태})+bC10(\text{연금자원유무})+bC11(\text{자가여부})+bC12(\text{건강상태})+bC13(\text{ADL장애유무})+bC14(\text{부모부양책임감})+bC15(\text{아들선호사상})$$

PA: 노후부양의 개인책임선호 확률, PB: 노후부양의 가족책임선호 확률, PC: 노후부양의 국가책임선호 확률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분포는 <표 4>과 같다. 여성의 과반수가 넘는 52.6%는 노후부양의 가족책임을 강조한 반면, 남성의 47.6%는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국가책임에 대한 성별 분포의 차이는 미미했다. 연령집단별로는 45~54세 젊은 장년층 집단에서 개인책임을 강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책임에 대한 강조 역시 45~54세 젊은 장년층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비노령집단이 노령집단에 비해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노후생활 영위를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

표 4.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 노후부양관

(단위: %, 점, 명)

구분		노후부양책임			전체 (사례수)	집단간차이 Chii-suqre, F값, 유의도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성	여 (0)	23.5	52.6	23.9	100.0 (723)	89.120***
	남 (1)	47.6	27.9	24.6	100.0 (456)	
	평균	0.5607	0.2505	0.3930	0.3868	
연령	45-54세 (1)	52.9	13.8	33.3	100.0 (87)	59.821***
	55-64세 (2)	45.2	26.7	28.1	100.0 (135)	
	65-74세 (3)	31.7	46.5	21.8	100.0 (523)	
	75세이상 (4)	26.2	49.9	23.9	100.0 (431)	
	평균	2.8964	3.3063	3.0246	3.1037	
지역	농어촌 (0)	34.0	49.1	16.9	100.0 (432)	21.447***
	도시 (1)	32.1	39.4	28.5	100.0 (744)	
	평균	0.6192	0.5802	0.7439	0.6327	
교육연수	평균 (표준편차)	7.914 (4.5698)	4.049 (4.2234)	7.098 (5.3251)	6.050 (4.9469)	85.994***
배우자유무	배우자유 (0)	15.1	60.8	24.1	100.0 (515)	154.251***
	배우자유 (1)	46.5	29.2	24.2	100.0 (664)	
	평균	0.7984	0.3826	0.5649	0.5632	
자녀수	평균 (표준편차)	3.48 (1.541)	4.40 (1.748)	3.09 (1.695)	3.78 (1.759)	65.036***
아들유무	아들무 (0)	27.2	19.6	53.3	100.0 (92)	48.580***
	아들유 (1)	33.2	45.0	21.7	100.0 (1086)	
	평균	0.9352	0.9645	0.8281	0.9219	
자녀동거여부	자녀비동거 (0)	36.7	34.0	29.3	100.0 (670)	52.789***
	자녀동거 (1)	27.7	54.8	17.5	100.0 (509)	
	평균	0.3643	0.5503	0.3123	0.4317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어렵다(1)	12.6	54.4	33.0	100.0 (285)	112.683***
	조금어렵다(2)	31.1	51.6	17.3	100.0 (312)	
	보통이다(3)	42.2	36.2	21.6	100.0 (464)	
	여유있다(4)	47.0	20.0	33.0	100.0 (100)	
	매우여유있다(5)	61.1	16.7	22.2	100.0 (18)	
	평균	2.74	2.12	2.29	2.37	
연금지원유무	연금무 (0)	29.7	54.0	16.2	100.0 (831)	161.077***
	연금유 (1)	40.2	16.7	43.1	100.0 (348)	
	평균	0.3618	0.1144	0.5263	0.2952	
공적연금지원유무	공적연금무 (0)	30.1	53.4	16.5	100.0 (850)	158.308***
	공적연금유 (1)	39.8	16.1	44.1	100.0 (329)	
	평균	0.3385	0.1045	0.5088	0.2791	

구분		노후부양책임			전체 (사례수)	집단간차이 Chii-suqre, F값, 유의도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사적연금자원유무	사적연금무 (0)	31.2	44.5	24.3	100.0 (1128)	34.629***
	사적연금유 (1)	68.6	9.8	21.6	100.0 (51)	
	평균	0.0904	0.0099	0.0386	0.0433	
자가소유여부	자가비소유 (0)	11.7	49.2	39.1	100.0	95.042***
	자가소유 (1)	40.0	40.9	19.1	100.0	
	평균	0.9096	0.7101	0.5895	0.746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건강하지못하다 (1)	16.0	53.5	30.6	100.0 (144)	49.650***
	건강하지못하다 (2)	29.3	49.4	21.3	100.0 (389)	
	보통이다 (3)	33.1	38.9	28.0	100.0 (296)	
	건강하다 (4)	42.5	37.3	20.2	100.0 (292)	
	매우건강하다 (5)	48.3	24.1	27.6	100.0 (58)	
	평균	3.0517	2.5878	2.7193	2.7718	
ADL장애유무	ADL장애무 (0)	34.9	41.5	23.6	100.0 (1059)	21.347***
	ADL장애유 (1)	14.2	56.7	29.2	100.0 (120)	
	평균	0.0439	0.1341	0.1228	0.1018	
부모부양책임감	평균 (표준편차)	21.0078 (4.5556)	23.0394 (3.7192)	21.3719 (4.5643)	21.9695 (4.3183)	29.226***
이들선호사상	평균 (표준편차)	9.5685 (2.8824)	10.9625 (2.6406)	9.2842 (3.1589)	10.0992 (2.9491)	41.550***
전체 (사례수)		32.8 (387)	43.0 (507)	24.2 (285)	100.0 (1179)	

한다. 반면, 75세 이상 고령집단에서는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가 가장 높았다. 즉, 비노령집단은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에 대한 강조를, 노령집단에서는 가족책임에 대한 높은 강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거주민은 가족책임을 보다 강조한 반면, 도시거주민은 국가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그 다음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개인책임을 높이 강조하는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가 높았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책임, 국가책임 순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없는 경우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아들이 있는 경우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의 경우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자녀비동거의 경우 개인책임을 강조한다.

경제적상태가 어려울수록 가족책임을 가장 강조하고, 경제적상태가 좋을수록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책임의 경우에는 경제적상태가 매우 어려운 경우와 여유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나, U자형 분포를 나타냈다. 연금자원이 없는 경우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과 개인책임에 대한 강조를 나타냈다. 특히 공적연금 자원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에 대한 강조가 높고, 사적연금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책임에 대한 강조가 보다 높았다.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가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개인책임에 대한 강조가 높았다. ADL장애가 없는 경우 및 있는 경우 모두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가 가장 높았으나, 장애가 없는 경우 개인책임에 대한 강조가 동시에 높은 반면, 장애가 있는 경우 개인책임에 대한 강조가 매우 낮았다.

부모부양책임감이 높을수록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가 높고, 아들선호사상이 높을수록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가 높았다.

<표 5>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0.6 미만으로 변수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될만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개인책임은 가족책임 및 국가책임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수가 작을수록, 자녀와 비동거인 경우, 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자가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ADL 장애가 없는 경우, 부모부양책임감이 낮을수록, 아들선호사상이 낮을수록 노후부양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족책임에 대한 강조는 국가책임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농어촌지역거주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들이 있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연금자원이 없는 경우,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ADL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부양책임감이 높을수록, 아들선호사상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가책임에 대한 강조는 도시거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들이 없는 경우, 자녀와 비동거인 경우,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부모부양책임감이 낮을수록, 아들선호사상이 낮을수록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교육연수, 배우자유무는 각각 0.431, 0.46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과 연금자원유무도 0.245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고, 연금자원도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수가 많으며, 연금자원이 없고, 부모부양책임감이 강하고, 아들선호사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거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적으며, 자가가 없고, 아들선호사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표 5.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성	연령	지역	교육연수	배우자 유무	자녀수
개인책임	1								
가족책임	-.538***	1							
국가책임	-.355***	-.437***	1						
성	.222***	-.243***	-.004	1					
연령	-.142***	.205***	-.037	-.011	1				
지역	-.014	-.083**	.127***	-.031	.091**	1			
교육연수	.249***	-.331***	.114***	.431**	-.222**	.216**	1		
배우자유무	.301***	-.313***	-.009	.465**	-.268**	-.076**	.404**	1	
자녀수	-.113***	.289***	-.207***	-.047	.272**	-.210**	-.289**	-.090**	1
아들유무	.031	.127***	-.191***	.071*	-.036	-.118**	.053	.138**	.331**
자녀동거여부	-.082**	.206***	-.123***	-.073**	-.016	.025	-.040	-.142**	.044
경제상태	.277***	-.172***	-.019	.179**	-.066*	.018	.356**	.225**	-.018
연금지원유무	.096***	-.323***	.272***	.254**	-.295**	-.083**	.316**	.228**	-.158**
자가소유여부	.253***	-.060*	-.188***	.187**	-.103**	-.291**	.171**	.262**	.090**
건강상태	.161***	-.145***	-.032	.186**	-.092**	.065*	.267**	.166**	-.045
ADL 장애유무	-.119***	.101***	.046	-.093**	.171**	-.058*	-.187**	-.124**	.141**
부모부양책임감	-.144***	.198***	-.072**	-.006	.186**	-.027	-.204**	-.144**	.106**
아들선호사상	-.119***	.236***	-.148***	-.065*	.244**	-.115**	-.296**	-.150**	.227**
	아들유무	자녀동거 여부	경제상태	연금지원 유무	자가소유 여부	건강상태	ADL 장애유무	부모부양 책임가치	아들선호 사상
아들유무	1	1							
자녀동거여부	.118**	1							
경제상태	.115**	.015	1						
연금지원유무	.052	-.017	.217**	1					
자가소유여부	.214**	.082**	.333**	.177**	1				
건강상태	.061*	.022	.258**	.140**	.149**	1			
ADL 장애유무	-.034	.039	-.135**	-.161**	-.103**	-.287**	1		
부모부양책임감	-.020	-.032	-.100**	-.193**	-.060**	-.110	.087**	1	
아들선호사상	.098**	.007	-.087**	-.176**	.040	-.065*	.118**	.448**	1

주: * p<.05 ** p<.01 *** p<.001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수가 적고, 경제상태가 좋으며, 연금지원이 있고, 자가를 소유하고, 건강상태가 좋고, ADL 장애가 없으며, 부모부양책임감이 약하고, 아들선호사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제상태가 좋고, 자가를 소유하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ADL 장애가

없고, 부모부양책임이 약하고, 아들선호사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들이 있고, 연금자원이 없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녀와 동거하고, 경제상태가 좋으며, 자가를 소유하고, 아들선호사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의 경우 자가소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연금자원이 있고, 자가를 소유하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ADL 장애가 없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자가를 소유하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ADL 장애가 없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고, ADL 장애가 없고, 부모부양책임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ADL 장애가 없고 아들선호사상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부양책임감과 아들선호사상 간의 상관관계는 0.448로, 비교적 강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가. 세대통합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은 기저모형보다 -2 Log Likelihood 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모형에서는 전체 연령계층이 통합된 분석모형으로, 모형 1에서는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모형 2에서는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 등 자원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모형 3에서는 인구학적 변수, 자원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치관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노후부양책임의 명목변수인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중 개인책임을 기준범주로 하여, 개인책임대비 가족책임 및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모형 1에서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여성의 경우, 도시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성의 경우 가족책임>국가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 강조 확률 2.38배 높고,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 강조 확률은 1.78배 높다).

모형 2에서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무배우자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들이 있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연금자원이 없는 경우, 자가를 소

표 6.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개인책임 기준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가족책임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 (개인책임대비)		가족책임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 (개인책임대비)		가족책임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 (개인책임대비)	
	B	Exp (B)										
상수												
여성 (남성기준)	-.913*		-.611		-.481		1.037		-2.787***		.734	
연령집단	.868***	2.382	.578***	1.783	.409*	1.506	.563**	1.755	.531**	1.701	.600**	1.822
농어촌 (도시기준)	.459***	1.582	.118	1.125	.203*	1.226	.166	1.181	.157	1.170	.168	1.183
교육연수	-.008	.992	-.600***	.549	.222	1.249	-.319	.727	.227	1.254	-.284	.753
교육연수	-.129***	.879	-.020	.980	-.041	.960	.030	1.030	-.023	.977	.029	1.030
배우자무 (배우자유 기준)					1.051***	2.862	.626**	1.870	.982***	2.669	.603**	1.828
자녀수					.205***	1.228	-.048	.954	.210***	1.233	-.045	.956
아들무 (아들유 기준)					-.885*	.413	.285	1.330	-.845*	.430	.256	1.291
자녀비동거 (자녀동거기준)					-.699***	.497	.281	1.325	-.742***	.476	.291	1.338
경제상태					-.416***	.660	-.310**	.734	-.420***	.657	-.308**	.735
연금자원무 (연금자원유기준)					.701***	2.015	-1.614***	.199	.616**	1.851	-1.645***	.193
자가비소유 (지가소유 기준)					.956***	2.601	1.672***	5.322	.993***	2.700	1.655***	5.231
건강상태					-.129	.879	-.115	.892	-.118	.889	-.100	.904
ADL장애무 (ADL장애유기준)					-.102	.903	-.931**	.394	-.017	.983	-.957**	.384
부모부양 책임감									.075***	1.078	.027	1.028
아들선호사상									.057	1.058	-.033	.968
모형적합도 -2LL (df) sig.	768.817*** (8)				1866.955*** (26)				1865.899*** (30)			

주: * p<.05 ** p<.01 *** p<.001

유하지 않은 경우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이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여성의 경우, 무배우자의 경우,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ADL장애가 있는 경우에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성의 경우 가족책임>국가책

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았고, 무배우자의 경우 가족책임>국가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았다.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족책임>국가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으며, 연금자원이 없는 경우 가족책임>개인책임>국가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국가책임>가족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경우 여성, 무배우자, 자녀수, 아들이 없는 경우, 경제상태, 연금자원 없는 경우,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ADL 장애가 없는 경우는 모형 2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부모부양책임감이 높을수록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세대별 분석모형

연령계층 세대별로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세대별로 역사적 경험과 상이한 사회경제적 상황 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과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 등의 가치관 형성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영향요인 및 영향력의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세대별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은 기저모형보다 -2 Log Likelihood 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어,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45~54세 집단은 여성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영향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54~64세 집단은 무배우자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65~74세 집단의 경우, 여성의 경우 국가책임>가족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자원의 경우, 무배우자의 경우 가족책임>국가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동거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자원의 경우,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국가책임>가족책임>개인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집단의 경우,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자원의 경우, 무배우자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동거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자원의 경우,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고,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았으며,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국가책임>가족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자원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으며, ADL 장애가 있는 경우

표 7. 세대별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개인책임 기준

변수	연령집단 1: 45~54세				연령집단 2: 54~64세			
	가족책임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 (개인책임대비)		가족책임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 (개인책임대비)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상수	11.805		15.893***		-4.528		.250	
여성 (남성기준)	3.442*	31.261	1.149	3.154	-.015	.985	.657	1.930
농어촌 (도시기준)	-1.216	.296	-1.037	.355	.706	2.026	-.290	.748
교육연수	-.092	.912	.114	1.121	.100	1.106	.087	1.091
배우자무 (배우자유 기준)	-1.197	.302	-.665	.514	2.150**	8.586	1.061	2.888
자녀수	.404	1.498	.067	1.070	-.208	.812	.041	1.042
아들무 (아들유 기준)	14.152	140038	17.010	243921	-1.626	.197	-21.694	0.000
자녀비동거 (자녀동거기준)	-1.481	.227	1.272	3.567	-1.761**	.172	-.022	.978
경제상태	-1.615	.199	-.156	.856	-.552	.576	-.288	.750
연금자원무 (연금자원유기준)	3.409	30.240	-1.365	.255	.346	1.414	-1.257*	.285
자가비소유 (지가소유 기준)	1.033	2.810	.822	2.275	.127	1.136	.503	1.654
건강상태	-1.306	.271	.023	1.023	-.041	.960	.157	1.171
ADL장애무 (ADL장애유기준)	-17.137	.000	-18.587	0.00	1.125	3.081	-.945	.389
부모부양책임감	.328	1.389	.104	1.110	.100	1.105	.005	1.005
아들선호사상	.087	1.091	-.130	.878	.200	1.221	-.027	.973
모형적합도 -2LL (df) sig.	103.914*** (28)				219.555*** (28)			

변수	연령집단 3: 65~74세				연령집단 4: 75세 이상			
	가족책임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 (개인책임대비)		가족책임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 (개인책임대비)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상수	-2.112		.534		-1.325		2.579	
여성 (남성기준)	.568*	1.764	.696*	2.006	.404	1.498	.208	1.231
농어촌 (도시기준)	.118	1.125	-.649*	.522	.667	1.948	1.031*	2.803
교육연수	-.036	.964	.052	1.054	-.026	.974	-.020	.980
배우자무 (배우자유 기준)	1.322***	3.751	1.202***	3.328	.673*	1.959	.185	1.203
자녀수	.239**	1.269	.125	1.134	.143	1.154	-.285*	.752
아들무 (아들유 기준)	-.330	.719	1.018	2.768	-.839	.432	.721	2.057
자녀비동거 (자녀동거기준)	-.705**	.494	-.043	.958	-.889**	.411	.626	1.870
경제상태	-.438**	.652	-.570***	.566	-.337*	.714	.086	1.090
연금자원무 (연금자원유기준)	.568*	1.764	-1.841***	.159	.900	2.460	-2.520***	.080
자가비소유 (지가소유 기준)	.918*	2.503	1.594***	4.922	1.586***	4.886	2.716***	15.126
건강상태	-.121	.886	-.122	.885	-.115	.892	-.348*	.706
ADL장애무 (ADL장애유기준)	.246	1.279	-.323	.724	-.349	.705	-1.129*	.323
부모부양책임감	.059	1.061	.036	1.037	.063	1.065	.034	1.034
아들선호사상	.072	1.074	-.034	.967	.004	1.004	-.040	.961
모형적합도 -2LL (df) sig.	802.873*** (28)				604.283*** (28)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별 분석모형

45~64세 비노인집단과 65세 이상 노인집단으로 구분하여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별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 역시 기저모형보다 -2 Log Likelihood 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

상되어,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인집단의 경우, 여성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자원의 경우, 무배우자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고, 자녀동거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경제적자원의 경우,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았으며,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치관의 경우, 부모부양책임감이 높을수록, 아들선호사상이 높을수록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표 8.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의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개인책임 기준

구분	비노인집단: 45~64세				노인집단: 65세 이상			
	가족책임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 (개인책임대비)		가족책임 (개인책임대비)		국가책임 (개인책임대비)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상수	-5.866**		.037		-1.683		1.399	
여성 (남성기준)	.656	1.927	.824*	2.280	.560**	1.751	.479	1.615
농어촌 (도시기준)	.071	1.074	-.647	.523	.332	1.393	-.149	.862
교육연수	.052	1.053	.071	1.074	-.029	.971	.029	1.029
배우자무 (배우자유 기준)	1.254*	3.053	.293	1.341	.901***	2.463	.732**	2.080
자녀수	.052	1.053	-.027	.973	.205***	1.227	-.023	.977
아들무 (아들유 기준)	-.597	.550	-1.567	.209	-.606	.545	.854*	2.348
자녀비동거 (자녀동거기준)	-1.164*	.312	.487	1.627	-.751***	.472	.209	1.232
경제상태	-.631*	.532	-.260	.771	-.387***	.679	-.319**	.727
연금자원무 (연금자원유기준)	.642	1.901	-1.228**	.293	.555*	1.742	-1.902***	.149
자가비소유 (지가소유 기준)	.663	1.940	.744	2.104	1.189***	3.284	1.981***	7.248
건강상태	-.118	.889	.153	1.166	-.132	.876	-.208*	.812
ADL장애무 (ADL장애유기준)	.838	2.313	-1.426	.240	-.061	.941	-.899*	.407
부모부양책임감	.138*	1.148	.043	1.044	.065**	1.067	.034	1.035
아들선호사상	.191*	1.210	-.043	.958	.036	1.037	-.033	.968
모형적합도 -2LL (df) sig.	354.309*** (28)				1454.309*** (28)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노인집단의 경우, 여성의 경우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자원의 경우, 무배우자의 경우 가족책임>국가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아들이 없는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경제적 자원의 경우,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족책임>국가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았고,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국가책임>가족책임>개인책임 순으로 강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자원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ADL 장애가 있는 경우, 개인책임 대비 국가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의 경우, 부모부양책임감이 높을수록 개인책임 대비 가족책임을 강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세대별로 본인의 노후생활비 조달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인식의 차이를 달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과 노령세대가 노후부양의 주체로서 본인, 가족, 국가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 노후부양에 대한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선호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인구특성별 선호는 여성의 경우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남성은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뚜렷하며, 국가책임은 유사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농어촌거주의 경우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도시거주의 경우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책임을 강조한다.

가족자원의 경우 배우자자원과 자녀자원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자원이 있는 경우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자녀자원이 많은 경우는 가족책임을 강조한다. 특이한 것은 자녀자원이 많은 경우에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특성도 보인다. 반면, 자녀자원이 미흡한 경우에는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경제적자원의 경우 경제적자원이 풍부할수록 개인책임과 국가책

표 9. 기술통계 분석결과 요약

구분	변수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인구적 특성	성	여성 < 남성	여성 > 남성	여성 = 남성
	연령	연령 낮을수록	연령 높을수록	연령 낮을수록
	지역	농어촌 = 도시	농어촌 > 도시	농어촌 < 도시
	교육수준	교육수준 높을수록	교육수준 낮을수록	교육수준 높을수록
가족 자원	배우자유무	배우자무 < 배우자 유	배우자무 > 배우자 유	배우자무 = 배우자유
	자녀수	자녀수 많을수록	자녀수 많을수록	자녀수 적을수록
	아들유무	아들무 < 아들유	아들무 > 아들유	아들무 < 아들유
	자녀동거여부	자녀비동거 < 자녀동거	자녀비동거 > 자녀동거	자녀비동거 < 자녀동거
경제적 자원	경제적상태	경제상태 좋을수록	경제상태 좋지 않을수록	U자형: 경제상태 좋거나 좋지 않거나
	연금자원유무	연금무 < 연금유	연금무 > 연금유	연금무 < 연금유
건강 자원	건강상태	건강상태 좋을수록	건강상태 안좋을수록	W자형
	ADL장애유무	ADL장애무 > ADL장애유	ADL장애무 < ADL장애유	ADL장애무 < ADL장애유
가치관	부모부양책임감	부모부양책임감 약할수록	부모부양책임감 강할수록	부모부양책임감 약할수록
	아들선호사상	아들선호사상 약할수록	아들선호사상 강할수록	아들선호사상 약할수록

임을 강조하며, 부족할수록 가족책임을 강조한다.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좋지 않을수록 가족책임을 강조한다. 연금자원이 있는 경우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연금자원이 없는 경우 가족책임을 강조한다. 건강자원의 경우 건강자원이 양질일수록 개인책임을 강조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가치관의 경우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이 강할수록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이 약할수록 개인책임 및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노후부양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분석모델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성은 개인<가족<국가책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는 김정석(2005) 연구에서 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수준이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김정석(2005) 연구에서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도 상이한 결과이다. 지역변수는 65~74세 집단과 75세 이상 집단에서 상이하다. 65~74세 집단에서는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요인으로서, 75세 이상에서는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요인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석(2005) 연구에서도 도시거주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과 유사하다.

배우자유무는 모든 모델에서 매우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무배우자의 경우 개인<국가<가족책임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역시 김정석(2005)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표 10. 기술통계 분석결과 요약

구분	변수	세대통합 분석모형	세대별 분석모형				비노인집단과 노인집단 분석모형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비노인집단	노인집단
인구적 특성	여성	개인<가족<국가	개인<가족	N.S.	개인<가족<국가	N.S.	개인<가족	개인<가족
	연령	N.S.	/	/	/	/	/	/
	농어촌	N.S.	N.S.	N.S.	국가<개인	개인<국가	N.S.	N.S.
	교육수준	N.S.	N.S.	N.S.	N.S.	N.S.	N.S.	N.S.
가족 자원	무배우자	개인<국가<가족	N.S.	개인<가족	개인<국가<가족	개인<가족	개인<가족	개인<국가<가족
	자녀수	개인<가족	N.S.	N.S.	개인<가족	개인<국가	N.S.	개인<가족
	아들무	가족<개인	N.S.	N.S.	N.S.	N.S.	N.S.	N.S.
	자녀비동거	가족<개인	N.S.	가족<개인	가족<개인	가족<개인	가족<개인	가족<개인
경제적 자원	경제적상태	가족<국가<개인	N.S.	N.S.	국가<가족<개인	가족<개인	가족<개인	가족<국가<개인
	연금자원무	국가<개인<가족	N.S.	N.S.	국가<개인<가족	국가<개인	국가<개인	국가<개인
	자기비소유	개인<가족<국가	N.S.	N.S.	개인<가족<국가	개인<가족<국가	N.S.	국가<개인
건강 자원	건강상태	N.S.	N.S.	N.S.	N.S.	국가<개인	N.S.	국가<개인
	ADL 장애무	국가<개인	N.S.	N.S.	N.S.	국가<개인	N.S.	국가<개인
가치관	부모부양책임감	개인<가족	N.S.	N.S.	N.S.	N.S.	개인<가족	개인<가족
	아들선호사상	N.S.	N.S.	N.S.	N.S.	N.S.	개인<가족	N.S.

주: N.S.= not significant.

이고 있다. 자녀수도 다수의 모델에서 개인<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아들이 없는 요인은 세대통합 모형에서만 가족<개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김정석(2005) 연구에서도 아들이 없는 경우 가족<개인<국가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녀비동거 요인은 대부분의 모델에서 가족<개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적상태도 대부분의 모델에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가족<국가<개인 혹은 국가<가족<개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금자원 요인은 연금자원이 없는 경우 국가<개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기비소유의 경우 개인<가족<국가에 대한 책임 강조도 대부분의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건강상태는 75세 이상 고령집단 및 노인집단 모델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개인책임을 강조한다. ADL 장애유무도 국가<개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김정석(2005) 연구에서는 ADL 장애가 있는 경우 개인<가족책임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부양책임감은 세대별 분석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개인<가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며, 아들선호사상은 비노인집단 분석모델에서만 개인<가족에 유의미한 영향변수이다.

2. 연구결과 함의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중고령층의 노후부양관은 아직도 자녀로부터의 지원 등 가족부양책임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표본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중표본이므로 중고령자를 대표하는 표본이라 볼 수 없는 한계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노후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의 강조가 여전히 강하고, 그 다음으로 개인책임, 국가책임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아직 한국사회에 노후부양에 대한 다른 대안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즉 국가책임을 기대할 만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뒷받침이 미흡하고, 개인의 노후준비도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세대별로는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큰 차이를 보였다. 45~64세 비노령집단은 개인책임>국가책임>가족책임 순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노령집단에서는 가족책임>개인책임>국가책임 순으로 나타났다. 세분화된 연령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컸다. 이와 같이 세대별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의 상이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부모부양책임감, 아들선호사상 등 전통적인 가족부양 가치관의 약화이며, 다른 하나는 세대별로 노후부양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고령집단일수록 가용한 자원이 자녀 등 가족밖에 없는 반면, 중장년계층일수록 가용한 자원이 본인의 노후준비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등 가용자원이 다변화되는 한편 자녀수 감소, 자녀비용 증가 등 가족자원은 작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적노후소득보장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를 감안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중장년층의 경우 부양가치관의 약화는 물론이고 가용한 가족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년층은 개인차원에서의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교육과 실질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대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후부양의 책임을 국가책임으로 간주하고 주요소득원이 공적연금이라고 응답하는 노인 비율이 60~80% 내외로 압도적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책임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분석 결과는 성숙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선진국과 다른 한국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사응답자가 국가책임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자원이 있는 집단의 경우 국가책임에 대한 강조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같이 공적연금이 성숙하여 노후소득의 주요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면, 노후부양관에 있어서도 국가책임에 대한 강조가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즉, 공적연금의 성숙과 함께 노후

부양관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도 급속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국가에 대한 기대가 낮아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순응도 역시 낮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족책임에서 국가책임이 아니라, 가족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다른 조사자료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가 노후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시사점은 두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노후소득보장에서 개인책임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책임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첫째, 개인이 스스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후의 경제적부양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개인, 가족, 혹은 국가의 어느 한 주체가 온전히 노후의 경제적 부양책임을 질 수도 없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변천 역사가 말해준다. 1950~60년대 복지국가 확대기에는 국가가 최소보장은 물론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까지도 공적연금으로 책임지려는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1970년대 후반이후 복지국가 재편기에 들어서는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을 온전히 책임지려던 시도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책임의 축소 및 재편과 사적책임의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원의 다원화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개인책임에 대한 노후생활비 조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소득원의 다원화 경향에 따른 개인적 노후부양책임에 대한 재강조 경향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개인책임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원, 인센티브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에서 아직은 국가의 역할이 미미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을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 연금수혜자가 발생하여 노령계층의 20% 정도가 평균 약 20만원 정도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08년부터 무각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중하위 70%에게 월 8~9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노후부양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종전에 비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높은 노인빈곤율이 보여주고 있듯이 노후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노후기초보장 역할과 책임은 많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가족부양 가치관 약화 및 가족자원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노후부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노후기초소득보장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석재은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림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연금 정책 등이다
(E-mail: seokje@hallym.ac.kr).

참고문헌

-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pp.56~89.
- 김상욱(2000). 노인부양의 불일치: 태도-행위의 세대내 불일치 및 세대간 불일치. **한국사회복지학**, 42, pp.41~82.
- 김영범, 박준식, 이기원(2008). 자녀와의 지원교환과 노인의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pp.47~65.
- 김정석(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 25(4), pp.1~11.
- 박경숙(2003). 세대관계의 다양한 구조. **한국사회학**, 37(2), pp.61~94.
- 박현정, 최혜경(2001). 한국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의 노후 부양가치관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pp.63~75.
- 이상림, 김두섭(2002). 세대간 교환관계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5(1), pp.83~111.
- 석재은, 유은주(2007).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가족법연구**, 21(1), pp.31~56.
- 석재은, 임정기(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1), pp.1~22.
- 석재은(2003).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 26(1), pp.79~113.
-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2000). 노인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16(1), pp.51~78.
- 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농어촌·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현숙, 류삼희(2005). 전통적인 효의식과 아들선호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노년층과 장년층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5(3), pp.177~194.
- 윤현숙(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pp.15~28.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2004).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2002).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68, pp.29~40.
-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1997).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제4회 국제비교조사결과 보고서*. 중앙법규.
- 일본 내각부(2002).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제5회국제비교조사결과보고서*. 중앙법규.
- Daatland, Svein Llay, Herlofson, Katharina. (2003). 'Lost solidarity' or 'changed solidarity': A comparative European view of normative family solidarity. *Ageing & Society*, 23, pp.537~560.
- Kim, Cheong-Seok, Lee, Ka-Ok. (1999). Family, Self or State as a Desired Source of Support for the Elderly. *한국인구학*, 22(2), pp.197~220.
- Millar, Jane and Warman, Andrea. (1996). "Family Obligation in Europe". *Social Policy Research* 107.
- Rein, Martin, Turner, John. (1999). Work, Family, State and Market: Income Packaging for Older Household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2, pp.93~106.
- Seelbach, W.C. (1978). Correlates of Ages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 and Realiz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7(4), pp.341~350.
- Seelbach, W.C. Sauer, W, J. (1977).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Morale among Aged Parents. *The Gerontologist*, 17(6), pp.492~299.
- Silverstein, Merri, Bengtson, Vern L.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pp.420~460.

The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in the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Seok, Jae Eun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how and why the perception of old-age support is differen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Using the third wave (2007) surveys on Hallym Aging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middle adults and the elderly consider self, family(adult children), or state as the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reveals that the perception on old age support is differ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availability of family,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as well as filial responsibility value.

Main results show that the older generations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younger generations regard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Female prefer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old age support. The more having family resources consider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the more having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consider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stronger filial responsibility value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The differences in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by generations are reflected in the decrease of family obligation value and family resources, and they show to change from family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However, no difference in state responsibility by generations is unique feature in Korean society, which distinguish from developed countries having mature public pension.

Keywords: Old-age Support, Source of Support, Individual Responsibility, Self-Support

2009년 제29권 1호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인쇄일 | 2009년 6월 26일

발행일 | 2009년 6월 30일

발행인 | 김용하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68

전화 | 02-380-8000

홈페이지 | <http://www.kihasa.re.kr>

제작 | 예원기획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Kwon, Hyuk-jin** The Problem of Poverty Evaluation of Heterogenous Households Based on SPD (Sequential Poverty Dominance)
- Jinyoung Hwang** Socio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s :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 In-Young Jung** Explain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Social Policy in Korea: The Cas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Um, Ki-Wook** A Study of Social Welfare Rights for Permanent Resident in Japan
- Sin, Yeong-jeon | Son, Jeong-in**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 Using the 1st and 2nd Korea Welfare Panel Data
- Shin, Hosung | Chung, Kee Hey | Yun, Simon | Lee, Suehyung** Climate Change, Food-borne Disease Prediction, and Future Impact
- Seok, Jae Eun** The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in the Perception on Old-Age Suppor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 Samsung Han | Sungwook Kang | Wangkeun Yoo | Young Gyu Phee** A Study of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 YunKyung Lee** Factors of Long Term Care Service Use by the Elderly
- Kyunjick, Lee** The Effect of a Market Orientation on the Performance of the Long-Term Care Facilities